



發行所 東大新聞社
社址 東大新館3街26
電話 8131~9
本館通話 8577
경주점 861
경북 경주시
전화 경주 2-0131~6
每週 火曜日 發行

法大·社會大·분리, 藝大·醫大·신설키로

法經大도 분리, 17單大로

3科 신설·2백20명 증원

법학대학원(법학·법정심판·법학박사) 3과 신설
법학대학원(법학·법정심판·법학박사) 3과 신설
법학대학원(법학·법정심판·법학박사) 3과 신설

편제 일부개편·추定制 완전폐지

지난20일 88학년도 입학정원 조정내용 확정



총장(앞줄가운데) 등 10.20일 88학년도 입학정원 조정내용 확정 회의에 참가한 법대 교수진

10.27 法難 眞切 切탄하라

지난24일 불교탄압 구탄외의 열편
10.27 法難 眞切 切탄하라
10.27 法難 眞切 切탄하라

10.27 法難 眞切 切탄하라
10.27 法難 眞切 切탄하라
10.27 法難 眞切 切탄하라

10.27 法難 眞切 切탄하라
10.27 法難 眞切 切탄하라
10.27 法難 眞切 切탄하라

민족자주통일외의길로 한미합방

28일부터 나흘간 백상체전 및 써클제 펼쳐져
28일부터 나흘간 백상체전 및 써클제 펼쳐져
28일부터 나흘간 백상체전 및 써클제 펼쳐져

근해광장 내년까지 조성
우리 28일 詩碑제막식

근해광장 조성사업
우리 28일 詩碑제막식
우리 28일 詩碑제막식

우리 28일 詩碑제막식
우리 28일 詩碑제막식
우리 28일 詩碑제막식

우리 28일 詩碑제막식
우리 28일 詩碑제막식
우리 28일 詩碑제막식

본리수
본리수
본리수

총장서량 13만2천여권
10월말 東洋書籍 가장 많아
10월말 東洋書籍 가장 많아

韓國文學研 세미나
무의심정입전 평가
무의심정입전 평가

本社 學術實原稿 31일 마감
本社 學術實原稿 31일 마감
本社 學術實原稿 31일 마감

1988학년도 모집전기
각 대학원 신입생 모집

Table with columns for 대학원 (대학원), 원 (원), and 모집전기 (모집전기). Lists various graduate programs and their respective departments.

개헌과 민주화의 과제

개헌의 의미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개헌은 국가의 체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개헌의 필요성

현재의 헌법은 1987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의 본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의 과제

개헌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헌법적 의식을 높이는 교육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개헌의 전망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국민들의 요구를 고려할 때, 개헌은 불가피한 과제이다. 그러나 개헌의 과정은 복잡하고 길다.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성공의 열쇠이다.

하위법의 구체화로 간판법 방지

개헌의 필요성

하위법(법령, 조례, 규칙 등)이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헌법을架空(架空)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헌법의 구체화

헌법의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간판법 방지

간판법(표준어법)은 언어의 통일과 문화를 보존하는 데 중요하다. 하지만 과도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언어의 다양성을 억압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언어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언어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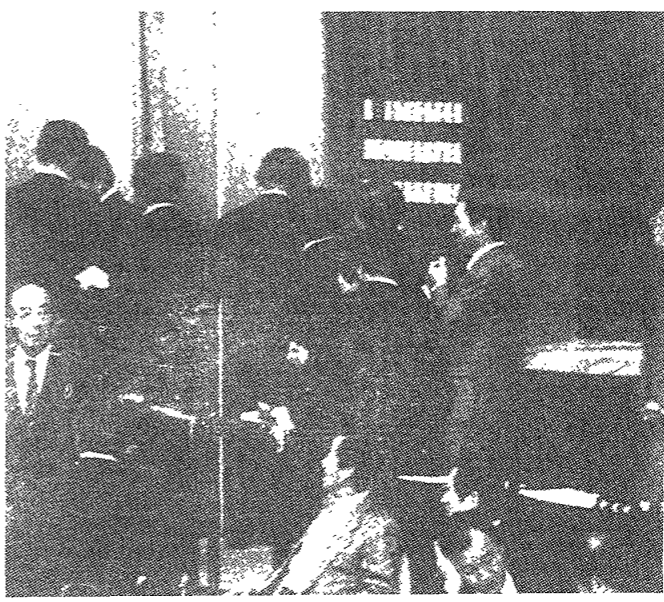
언어 정책은 문화 정책의 핵심이다. 표준어와 방언의 조화를 이루고, 외국어 교육과 함께 우리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자존감을 높이고, 국민의 언어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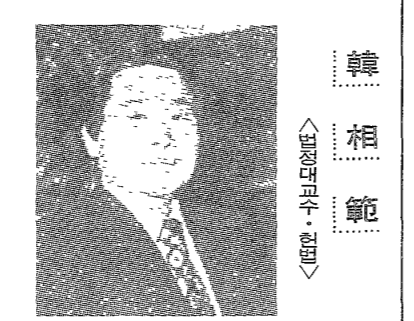
軍政중심의 체계가 마련이 과제

형식·내용면의 많은 문제점 드러나

국회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의 헌법 체계는 여전히 군정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정 중심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월12일 국회본회의에서의 개헌안 의결장면.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김성환은 개헌 논의에 대해,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의 약속이다.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정 중심의 체계를 바꾸는 데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또한, 언어 정책과 관련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개헌 논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언어 정책과 관련된 논의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lliance française

METHODE DE FRANCAIS
METHODE TELEVISUELLE
프랑스어
- 11-12월 학기
- 개강: '87.11.2 (월)
- 접수: 10.21 (수)부터

MAUGER I. II.
SANS FRONTIERES I. II. III.
ARCHIPEL I. II. III.
VIDEO 강의:
- Avec Plaisir.
- France Actualite.

사사: 무역영어, 체네마 해설반
올림피아 영어, 요리학 특강
문화외국어, 언어학, 디플로마, etc.

言論社 受験叢書!

自時英著 **메스킴 國語精解**
董理詰著 **메스킴 英語精解**
金聖鎬著 **메스킴 常識精解**

董理詰先生の 高級英語受験書!
大學院 英語精解 B5判/541面 값7,800원
考試 英語精解 B5判/797面 값9,500원
考試 VOCABULARY 精解 B5判/497面 값6,500원

發售 出版社

외국어교육의 선구자

PAGODA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철저한 학습과 교수진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인영어회화, S.L.E. (간편 12월/강사권한 학사·석사출신 미국인/10년전성), 미국정통영어·Side by Side 기교영어회화, Active 회화

ENGLISH 철학, 문법·TIME·영어순화·TOEFL·종합영어 영어특혜·상반기본영어·영어실력기초·KOREA TIMES VOCABULARY·AFKN 철학·TOEFL L/C·부역영어

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연하는 일본어·표준일본어·NHK 인기영어·일어용어기초·프랑스어·프랑스문화·독어·독일문화·중국어·중국문화

TUTORIAL SYSTEM으로 특수훈련된 최인어학교수님 외국식 학습분위기·최신시식·전원전일합·수료증 취득 PLACEMENT TEST를거친LEVEL제임

274-4000, 274-6821, 6822
다들하기 예약수준
중로 2기과교과원전원원원원

파고다 외국어 학원

예비군 교육소집

<87후반기 사격>
예비군설치법6조및 동시행령 13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87년도 후반기 예비군교육을 소집함

- 교육대상: 전 예비군학생 및 교직원
-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보류자)
 - ① 87.6.22일 실시한 후반기교육 참석자
 - ② 미필보충역
 - ③ 87.1.1일 이후에 전역한 예비역(단, 상위제 대자는 필히 교육에 응송해야 함)
 - ④ 87.2학기 복학생으로서 지역에서 16시간이상 교육받은 자
- 대학별 교육일정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시간	교육장	교육장	교육장	교육장	교육장	교육장	교육장
97년 11월 11일 (토) 17시	서울대학교	11월 11일 17시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98년 1월 17일 (토) 17시	고려대학교	1월 17일 17시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98년 1월 17일 (토) 17시	연세대학교	1월 17일 17시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98년 1월 17일 (토) 17시	한양대학교	1월 17일 17시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98년 1월 17일 (토) 17시	조선대학교	1월 17일 17시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98년 1월 17일 (토) 17시	경희대학교	1월 17일 17시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98년 1월 17일 (토) 17시	충청대학교	1월 17일 17시	충청대학교	충청대학교	충청대학교	충청대학교	충청대학교	충청대학교	충청대학교
98년 1월 17일 (토) 17시	한림대학교	1월 17일 17시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
98년 1월 17일 (토) 17시	동국대학교	1월 17일 17시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유념사항
○ 집에서 훈련장까지 오고갈 때는 필히 사복을 착용하고 예비군복을 휴대하여야 합니다(사복착용자만 훈련장소를 허가함)
○ 각 개인은 위의 자기 소속 대학별 교육일정 및 집합시간(08:00시)을 필히 준수바랍니다(지연 도착자는 사격입장 불가함)
○ 87년도 예비군교육은 마지막 기회이며 불참하는 인이 없도록 유념(불참시 자동 보류됨)
○ 병역수첩을 휴대하여 교육받은 사항을 정리 및 날인반도복 하십시오
○ 대학원소속 예비군은 해당 대학원교과과에서 훈련통지서를 수령하여 주시기요 (87.10.30일 한)

동국대학교 예비군연대장

◇한국 정치사에서의 左·右대립

1987년 10월 27일(화) 1면 10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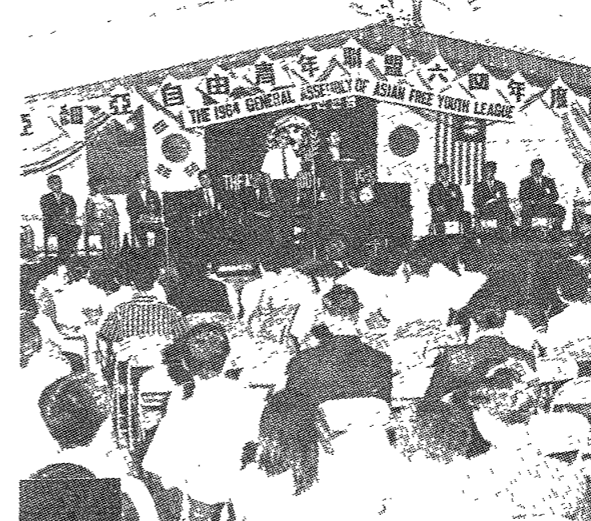
한국 정치사에서 左·右대립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이 대립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16일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적 통치에 반대하여 등장한 민주화 운동은 左·右대립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이 운동은 1987년 2월 28일 6월 항쟁을 통해 절정에 달했으며, 결국 1988년 2월 25일 6월 항쟁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적 통치가 종결되고,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左·右대립은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다. 1987년 10월 27일(화) 1면 10행

이념대립은 민족해방과제 확인으로 접근

이념대립은 민족해방과제 확인으로 접근

이념대립은 민족해방과제 확인으로 접근

이념대립은 민족해방과제 확인으로 접근



이념대립은 민족해방과제 확인으로 접근

강제적인 이념노선 차단

강제적인 이념노선 차단

강제적인 이념노선 차단

강제적인 이념노선 차단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남북대립의 해인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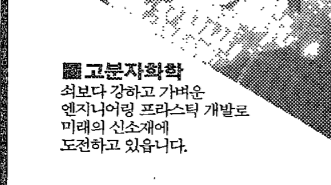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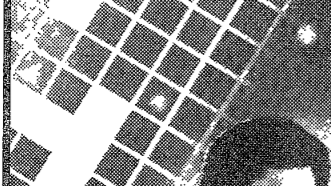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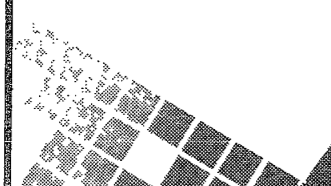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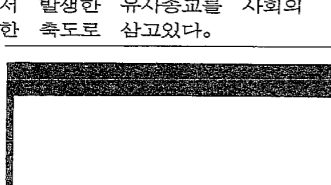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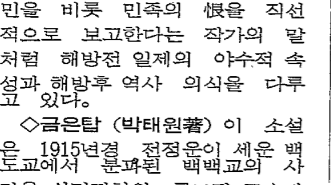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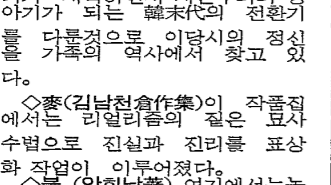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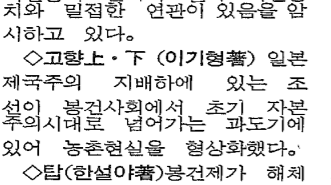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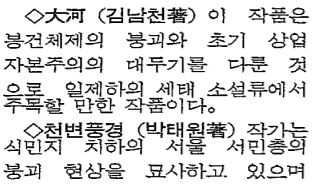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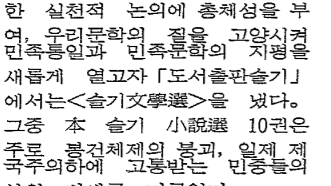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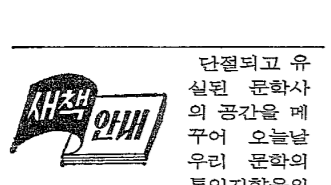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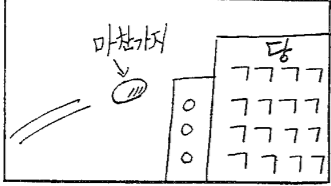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어로니

오 할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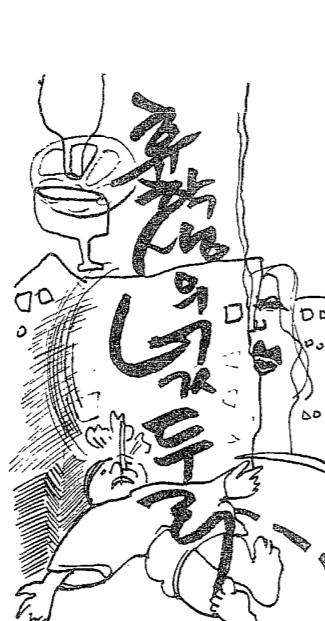
“청산별곡을 불러대다 분위기 깬다 야단맞았지”

“너로부터 탈출하여 끝이 보이는 새벽의 잠을 자고 싶다.”

평론

河 一비오는 오후, 푸념하는 시라도 한수 읊조리면 네가 그리워질까?—

I. 한 여름 밤의 꿈 이 문열의 「젊은날의 초상」을



읽고 힘겹게 휴학을 결정한 그 해 여름, 병든 수캐처럼 열대거리며 도시의 어둠을 기웃거리던 어느 여름 날.

담담리 우석에 찌그러지듯 서

패하더군요 『그런데 자네는 왜 마지막에 눈물을 흘렸지?』 『……』 『세상이 자네를 배신했다고 여겨질때는 떠나버리는 것이 최고라네. 모든 것에서 떠날 때만이 가장 자유스러워지지』

그날 우리 세 사람은 역세게 퍼마셨지. 탐보의 M-60과 로빈슨 크루소의 짐승 가죽, 그리고 나의 신발을 전담포에 집히고 명동까지 진출하여 반새껏 퍼마셨지. 술에 KO되어 김바닥에 널부러졌다가 깨어난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떠나고 거리는 비어 있었지. 아 그라운 나의 벗들.

II. 사람 그리고 우울한 전자제. 그대 소리가 피어나는 새벽 물안개를 머들며 사뿐히 나오시게. 이들의 끝에 서서 찻는 내린 새벽물안개의 마음도 맞이하겠네. 잠을 자고 싶다. 너로부터 탈출하여 끝이 보이는 새벽의 잠을 자고 싶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사랑은 이뤄질수 없나니 너 특신이어 영원하라. 이 땅에서 우리들의 완전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나니 너 고독이여 영원하라. 『라스플리니코프와 마추 앉아 맥주를 마신다. 러시아의 추위는 우리들의 안주. 이스피린을 세알씩 곱게 빨아 맥주와 함께 우리는 마셨다. 라빅이 왔으면 김바도스를 읊미할 수 있었을텐데. 말할 놈의 비밀 경찰 때문에 그는 어더튼가 숨어버렸다. 『눈에 보이는 추격자를 둔 라빅은 행복한 녀석이야』 한 여름인데도 오한에 떨면서 라스플리니코프는 이야기했다. 그의 옆에는 낡은 연장 가방 하나. 우리들의 가슴은 언제쯤 뜨거워질까? 맥주가 달게 느껴진다. 언젠가 쓰디쓴 나의 사랑도 달게 느껴질 날이 있으니까? 이젠 떠날 것이다. 시베리아로 떠나는 라스플리니코프를 배웅하기 위해 돌아오고 싶지 않은 부산항으로. 예쁜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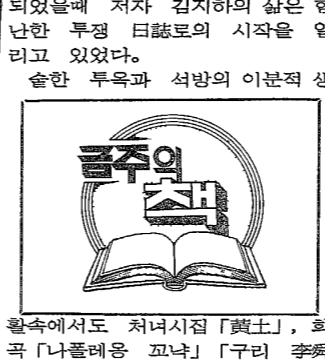
래라도 한마리 잡아 너의 품에 안겨주고 싶다. II. 서글픈 축제 벚꽃을 보았지. 모두들 돌아선 모습. 원일 아침 구겨진 모습으로 삼류극장에서 홀로 영화본다. 삼류 유령가 가사를 되뇌이며 하염없이 무너져 내린다. 무슨 있었어? 잊어진 지도를 붙들고 돌아버린 것은 잃어버린 여름만을 아쉬워했기 때문일까? 알투스 도오메의 「마지막수업」을 읽고 출수 있을까? 신앙과의 결별을 선언한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신앙의 벗들이 주여 주여 나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아편같이 향기로운 소주 일곱잔에 우리는 결코 구 취해버렸다.

오늘은 칠월 옥석. 견우와 직녀의 서글픈 사랑을 위하여 별쳐부터 까마귀와 까치는 눈물로 오작교를 엮어 나간다. 우리보다 하루 앞서 사는 그들에겐 오늘이 칠월 칠석인가? 하루를 앞서 고통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왜 견우와 직녀는 그토록 허약한 사랑을 했는가? 삶에 대한 애착은 그토록 절친 것인가? 우리들은 언제쯤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내일이면 견우와 직녀는 만나야 할텐데... 신앙의 벗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로 정신이 없었다. 비에 젖어 고장난 거리의 전차 이상하게 생긴 화염이는 연신 스크루바를 의처했고 사랑때문에 장님이 되어버린 승병원은 연신 여대생 미스 신단 외쳐댔지. 나의 주머니엔 주머니 이별이 하나 가득. 가슴은 없어도 얼얼이는 크며 정미부이는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승환과 상성은 고독한 모습으로 노래부르며 춤을 추었다. 청산별곡을 불러대다 분위기 깬다고 야단맞았지. 눈물이 말라버린 오작교. 모두들 추운 모습으로 쓸쓸히 떠났다.

문 경 보 <문화대 국문과>

특유의 시人的 직관으로 탐구된 삶

김지하 수상록 「살림」



지난 70년 우리네 지성을 일깨워 주었던 반성케 한 「五賊」이 「應想界」 5월호를 통해 발표되었음에 저자 김지하의 삶은 험난한 부정 巨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술한 부록과 석방의 이복적 생

우리네 대다수의 민중과 이와는 반대로 애국된 삶을 진정한 삶이라 여기고 사는 이윅들의 모습까지 모두를 「살림」이라는 우주생명에 일치되는 삶으로 「살림」의 사상인 생명사상에 놓고 보고있다.

즉, 저자는 이 「살림」의 사상은 민중의 삶의 틀을 비추어, 그들의 삶속에서 빛어낸 종교, 매관, 불건, 독재, 유사종교에서 왜곡 치부해 버렸던 동학, 종산교, 남조선사상들을 새로이 발견, 견져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총 6부로 나뉘어 전개시키고 있는 이 책은 제 3부 「대머리」라는 부제의 글내용에서 보더라도 누구나 쉬이 공감하게 되는 일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실생활에 밀착된 내용집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내용인즉, 「대머리」가 요즈음 너무 많아졌다고 언급한뒤, 옛선인들은 갖이나 두건의 예를 갖춘 생활로 (과학적으로) 대머리를 피는 것을 피할 수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본디, 예절이나 제도나하는 것들이 모두 「살림」을 잘 살게하는 살림의 틀, 「살림살이」였던 것이 차차 세월이 흐르면서 살림으로부터 멀어져 오히려 삶을 억압하고 감금하는 「죽림」의 틀로 변해 버린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뽕충은 이제 다시 「죽림」과 「죽림」의 예절이 아닌 「살」과 「살림」의 예절을 되살려 뽕충이나 바람과 머리칼의陰陽을 이해하는 것으로 머리카락의 陰陽을 이해하는 것으로 부지하게 팔려 살아온

자, 새로운 두건을 만들어 노동모처럼 대중화 시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의 성실한 탐구에 의해 관습의

일로 시작하여 깊이있는 독특한 논리를 창출해 나감으로써 의논이요 하여금 부당없이 흠잡히게 않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깊은 의문의 여지를 남겨 뒤, 문제를 제기케 하는 사색을 요구 하고 있다. 이 책은 민중의 삶과 문화를 지향, 위대한 기량의 「살림」 「남녘별 노래」 등이 지닌 다스려진 지성문명의 추상적 난해한 내용수독의 한계점을 벗어 나고 있으며, 지난해 출간된 시집 「애린」에서 남침선에 걸맞은 애매모호성을 나타냈던 뽕충의 인의 초현한 절망의 모습이 긴 사색으로 말끔히 씻겨졌음을 감지할 수있어 저자의 민중과 문화에 대한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허 유 <本社 문화부장>

◇「살림놀이」 공연을 보고

「신선레파토리」에서 지난 박재사·김태수연출로 「평」은 웅장하고 있음에 시흥종극극의 眞面目을 여의한 시대로 파격적 무대를 가득 채우던 그 무엇인가의 후면향에 유린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 신선레파토리의 제 6회 공연인 「살림놀이」 역시 시흥종극의 전통을 또 다른 면을 시사해준 변역극이라 볼 수 있었다. 유진 이오네스코 원작을 김태수 연출로 국내에서는 초연으로 한극무대에 올렸던 것이다.

이 극의 제목 「살림놀이」는 프랑스의 고유 민속놀이인 하나로서 인형들을 죽게 만들고는 꿈을 던지거나 아니면 꿈에서 넘어뜨리는 놀이를 칭하는 것이다.

이 놀이의 내용처럼 극의 내용 역시 연속살인이라는 연쇄살을 그 포인트로 잡고 내용물을 전개해 나간다.

주인 미사후 광장에서 어린 한명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서로 죽은 이유를 전가하는 때이후부터 갑자기 할명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어간다.

총 17장면으로 구성되어 그 중 거미장면이 4장면이 나오는 등 세우·오해·죽음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극의 주류로 흐르면서 그중간 중간에 정치적 견해를 지닌 연사(정약가)가 그 죽음과는 상관없는 정략적인 말만 되풀이 하는 등 의사·관료인·노동들을 등장시켜 「죽음」과



죽음으로 생을 인식하려는 민중의 의의와 사색의 적 노련함을

「울타리」 공연

극단 가오에서는 올해 뉴욕비평가그룹상, 프리처상, 트리니티상을 수상했던 어거스트·월슨의 「울타리」를 김호태 연출로 오는 26일까지 문예회관 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공연시간은 하오 4시30분, 7시30분 하루 2회 공연.

「내일의 나라」 공연

극단 「백의」의 실험무대가 자체 공간인 청파소극장에서 마카 열연대 원작 「내일의 나라」를 김호태 연출로 행해진다. 공연은 내달 1일까지 하오 4시30분, 7시30분 하루 2회에 걸쳐 공연.

「달라진 저승」 공연

극단 「연우무대」는 김광림 작·출연의 「달라진 저승」 작품을 연우 소극장(해동동) 무대에 오는 31일까지 올린다. 공연시간은 하오 4시30분, 7시30분 하루 2회 공연.

「우리들의 사랑」 공연

한국음악극 연구소는 창작노래극 「우리들의 사랑」 공연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 예정이다. 공연시간은 하오 4시30분, 7시30분 하루 2회 공연.

「成大제3차연석강좌」안내

成大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한국의 민중주의 사상과 현실에 관한 제3차 연석강좌」를 오는 28일 하오 3시 심산관 4층 (동명세미나실)에서 갖는다. 이날 강연내용은 「한국의 경제개발과 통상정책」라는 주제로 강사는李大根(成大·경제학과) 교수이다.

있는 포장마차로 들어섰지. 술이 나를 마시게 하지 않기는 건될 수 없는 특마를 느꼈지. M-60을 둘러싼 근육질의 사내와 풀잎 남방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지. 근육질의 사내이는 마구 외쳐댔지. 『세상이 저를 배신했읍니다. 그래서 이놈으로 시대를 은용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읍니다. 정말 풍

가자는 소박한 바람이었다. 그것은 「人」의 文化, 곧 「情」의 文化였다. 할리우드라고 하는 오히려 情을 중시하여 여진 문화는 결국 恨으로 귀결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恨마저 사랑해버린 우리 민족이었던 것이다. 韓國魂의 노래처럼 「服從하고 싶으면 복종」하고, 그

을 먼저 걱정해 준 것이 우리였고, 연일 떠돌아다니는 배스콜의 「아담후보 단입화」 기사에 그 속삭이는 인간의 배신감을 먼저 느낀게 우리네 모습이었다. 최근 비디오판 「기적」에 의해 초포된 「인간」을 가엾게 여긴 심정이 여전히 흐르는 우리네 조그만 마음이다. 정치적이기엔 너무나 소박한 한국인이다. 오늘날은 국민투표일. 그간 많은 모순점을 논쟁해 온 舊헌법을 개정해보자는 날이다. 선택의 기회란 없다. 단지 몇몇이 끌어고선 사례에 찬·반을 던질 뿐이다. 그러나 메이리우는 안다. 많은 사람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투표를 하고 찬성표를 던지리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소박한 정치의식이라 하는 것을. 그래서, 사랑한다, 소박한 우리네 마음들을. 그러나, 그러나 정치적 현태의 속병인 것을...

고대그 리스의월 학자 아 리스텔레스는 人間을 가리켜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다. 훗날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라고 해석을 내리는 사람도 나타났는데, 하여간 이 말에는 그의 국가관·사회관이 단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眞理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소박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온 게 우리네 韓國人들이다. 옛부터 스스로를 「白衣의 民族」이라 부르며 그 흰색관복이나 부엌명하에 살아온 우리네 삶은 어쩌면 철저히 非政治적이었던 지도 모른다.

일찍이 定着農耕을 시작한 祖上들은 서로 돕고 아끼며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생활속에서 사람과 평화를 회구해 왔다. 희망이라면 그저 1년농사 잘되고 화목하게 살아

소박한 韓國人

것을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한 행복보다도 여진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비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네 모습이었다.

이런 애처우리민족 소박한 정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져 온다. 5월 피의 광주에서 군부의 잔악성에 놀라기전에 애도의 땀이 앞섰던 사람들이, 이제 위엄담에 꼬마원하는 우리네 모습. 현고본사간신 경찰들의 비열함보다는 그 여성들의 아름

〈勝〉

리키금성

人間·技術·未來

技術을 심는다, 未來를 거둔다

고분자화학·정밀화학·유전공학—첨단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리키

리키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눈으로 바라보는 21세기—리키는 기술을 심어 미래를 거둔다. 첨단소재의 무한한 영역을 넓혀가는 고분자화학에서, 자원부족을 고부가가치 기술로 극복하는 정밀화학에서, 생명공학과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유전공학에서, 리키는 첨단기술의 무한한

技術을 심는다, 未來를 거둔다

가능성에 도전하여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도전만이 미래를 앞당깁니다.

화학공업을 선도하는

리키

고분자화학: 최첨단 강하고 가벼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로 미래의 신소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밀화학: 유공해농약, 염료 등의 고부가가치 화학산업에서 기술의 결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생명의 무한한 영역을 탐구하고 있습니다.